

사회복지실천에서 인형극 활용을 위한 사례연구

-보호관찰 대상 청소년을 중심으로-

이정미(전북대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

최옥채(전북대 사회복지학과)

1. 문제제기

사회복지실천 분야가 다양하고 클라이언트의 문제 및 욕구가 복잡한 만큼 효과·효율적인 사회복지실천 방안이나 기술 역시 다양한 형태로 개발·활용되어야 한다. 이는 목수가 건축 현장의 변화에 따라 다양하고 적절한 연장을 마련하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새로운 사회복지실천 방안이나 기술의 개발과 활용은 사회복지실천의 상황을 토대로 독창적으로 이루어지거나, 사회복지실천 이외의 영역에서 이미 활용하고 있는 것을 적절히 응용함으로써 가능하다. 어떠한 방법으로 이루어지든 새로운 방안이나 기술은 끝내 사회복지실천 사례를 통해 검증 절차를 거쳐 사회복지실천 현장에 소개되어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교육과 재활 현장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는 인형극을 사회복지실천에서 활용할 수 있는가를 알아보고, 활용이 가능하다면 활용 방안을 위한 구체적인 자료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인형극은 유아 및 아동의 교육활동(Leyser, 1984; 김삼성, 1999 재인용), 장애아동의 재활(김현경, 1993; 여광웅·김삼성, 1998), 정신과에서의 심리치료(김청자, 1997)와 같은 영역에서 효과성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장애아동과 비장애아동이 함께 하는 통합교육을 수행하는 데도 인형극을 활용하여 적절한 효과를 얻은 것(김삼성, 1999; 유수옥·최수미, 2001)으로 연구 결과가 나왔다. 실제로 인형극은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교회 같은 곳에서 유아나 아동들에게 흥미를 유발하고, 이들의 상상력을 키우는 데 목적을 두고 활용되고 있다.

그럼에도 사회복지실천에서의 인형극 활용은 매우 미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우리 연구자들은 문헌조사를 통해 사회복지실천에서 인형극을 활용한 사례나 연구 결과물이 없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다만 사회복지학을 전공하고 인형극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극소수가 장애인 생활시설, 교회, 성폭력상담소에서 소 프로그램으로 인형극을 활용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소집단 규모의 인원이 인형극에 참여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집단사회사업방법을 기본으로 하는 사회복지사가 인형극을 의뢰 활용한다면 유의한 점이 많을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현재 인형극이 유아 및 아동을 주요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을 폭넓은 사회복지실천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다면, 이는 인형극을 활성화하는 계기도 마련하는 것이 된다.

이 연구의 주요 목적은 사회복지실천에서의 인형극 활용 가능성을 탐문하는 데 있다. 연구자들은 이

를 위해 인형극과 관련하는 문헌을 조사하고, 실제 인형극을 실시하였다. 특별히 보호관찰 대상 청소년을 참여시켜 실시한 인형극 사례로부터는 질적 사례연구 방법을 적용하여 자료를 수집·분석할 것이다. 이런 작업을 통해 연구자들은 사회복지실천에서의 인형극 활용 가능성을 엿보고, 가능하다면 인형극의 활용을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을 찾아내고, 인형극 활용의 구체적인 방안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잡아 올리는 데 몰두할 것이다.

2. 연구 방법과 연구 문제

1) 연구 방법

이 연구에서는 크게 문헌연구와 사례연구 방법을 적용할 것이다. 먼저 문헌연구를 통해 인형극에 관한 기본적인 이해를 꾀하고, 아울러 인형극에 관한 선행 연구 결과를 살펴볼 것이다. 특히 사례연구 방법은 사회 현상 중 학문적으로 정립이 안 된 분야에 관하여 통찰력을 키우는 데, 연구를 위한 가설을 찾기 위해 소수의 한정된 사례를 집중 연구하는 데, 개인과 집단 및 지역사회와 이들의 상황에 관해 특징을 밝히고 설명하기 위한 정보를 얻는 데, 유사한 사례들과의 공통성을 규명하여 보편화하는 데 사용되기 때문에(신경림 외, 2004:450) 이 연구를 수행하는 데 적절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특별히 인형극 사례를 도구 삼아 뒤에서 언급할 연구 문제를 풀어갈 것이므로 스테이크(Robert Stake)가 분류한 세 가지 사례연구 방법²⁾ 중 도구적 사례연구(Stake, 2000:24)를 적용할 것이다.

사례연구 방법을 통한 자료 수집은 연구자들이 인형극을 직접 진행하거나 보조자로 참여하면서 경험한 것과 관찰한 것에 집중하여 이루어질 것이다.³⁾ 나아가 연구자들은 인형극에 참여한 보호관찰 대상 청소년은 물론 이들과 밀접히 관계하면서 인형극을 지원했던 보호관찰소와 쉼터 관계인을 통해 자료를 수집할 것이다. 이처럼 다양한 자료원으로부터 자료를 수집하려는 것은 사례연구에서 자료 수집의 증거가 포괄적이어야 하고(신경림 외, 2004:471 재인용), 그럼으로써 사례연구를 평가하는 데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보할 수 있다(Orum et al., 1991:17-19 재정리)는 점에 충실하기 위해서이다. 이뿐만 아니라 다양한 자료원을 확보하여 자료를 수집함으로써 덴진(Norman Denzin)이 소개하는 네 가지 삼각측정 방법⁴⁾ 중 해석에서 확신성을 높이기 위해 여러 가지 접근을 시도하는 데 유용한 방법론적 삼각측정을 가능하

- 1) 김성천(1995:37)은 사회복지실천에서의 다양한 연구 방법이 필요함을 강조하면서, 더러 사례연구 방법을 적용한 점은 고무적이거나 이들 연구가 과학적인 사례분석 방법에 근거하지 못하고 성공 사례를 제시하는 데 그쳤다고 지적하였다. 이와 같은 사회복지학계의 처지가 10여 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별 변화가 없을 정도로 사례연구 방법의 적용은 미진한 실정이다.
- 2) 스테이크는 사례연구의 방법으로 본질적 사례연구, 도구적 사례연구, 집합적 사례연구 세 가지 유형을 제시하였다. 본질적 사례연구는 사례의 특수성과 평범함으로 인해 사례 자체에 관심을 두기 때문에 특정 사례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한 방법이며, 도구적 사례연구는 사례를 다른 상황을 이해하는 데 돕기 위해 활용하기 때문에 쟁점이나 문제에 통찰력의 원천으로 기여하거나 다른 이론을 정련하기 위한 방법이고, 집합적 사례연구는 수많은 사례를 동시에 연구함으로써 현상이나 일반적 상황에 관해 조사하기 위한 방법이다(신경림 외, 2004:453).
- 3) 연구자 중 이정미는 인형극의 전체 진행을 맡았고, 최옥채는 인형극을 총괄 지도·감독하면서 쉼터와 보호관찰소의 협력을 꾀하고 참여 청소년의 수가 부족하여 조명을 맡아 인형극을 보조하였다.
- 4) 연구과정의 타당성을 확인하려는 윤리적 요구에서 나온 삼각측정을 덴진은 방법론적 삼각측정 이외에도 자료출처 삼각측정(연구자가 서로 다른 맥락에서도 같은 지를 조사할 때), 조사자 삼각측정(몇몇 연구자들이 같은 현상을 조사할 때), 이론 삼각측정(연구자들이 서로 다른 입장에서 같은 결과를 해석할 때) 네 가지로 구분하여 소개하였다(이명숙, 2001:171).

게 할 수 있다. 요컨대 처음부터 다양한 자료원을 확보하여 이들 삼각측정이 가능토록 함으로써 수집한 자료를 통시적으로나 공시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는 사례연구의 특성(Bahr & Caplow, 1991:85)을 살려 이 연구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한편 수집한 자료를 분석·해석하는 데 스테이크가 제시한(Stake, 2000:118-136 재정리) 범주합산과 직접해석 전략을 바탕으로 상응감(相應感, a sense of correspondence)을 가지고 임할 것이며, 자연주의적 일반화⁵⁾에 중점을 둘 것이다. 아울러 인형극 사례에 대한 분석은 패튼(M. Patton)이 제시한 양식 맞추기 기술(이명숙, 2001:176)을 활용할 것이다. 예컨대 특정 상황에 관하여 수집한 자료가 일치하지 않을 때 여러 자료원을 통해 하나로 수렴·해석하고(범주합산 전략), 한 가지로 드러난 자료는 바로 해석할 것이다(직접해석 전략). 이들 전략을 바탕으로 수집한 자료 중 분석하려는 부분은 철저히 인과관계를 밝혀 해석하고(상응 탐색), 수집한 자료를 해석할 때 이야기체의 설명이나 시간과 장소를 강조함으로써 독자가 대리경험의 기회를 갖도록 하고(자연주의적 일반화), 인형극의 진행 과정을 사회복지실천의 진행 과정에 맞추어 분석할 것이다(양식 맞추기). 덧붙여 연구자들은 자료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후푸나겔(E. Hufnagel)도 강조한 바(Hufnagel, 1994:48)처럼 현상을 이해하는 계기들의 이중성을 현상 그대로 명시함으로써 반성적 태도를 견지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 같은 반성적 태도에 반하는 무반성적 태도는 자칫 편견과 독선으로 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

끝으로 연구자들은 사례연구 방법이 철학적으로 자연주의적 존재론⁶⁾에 근거함을 고려하여 “실재는 부분을 따로 연구하기 위해 쪼개질 수 없고, 맥락을 떠나서 이해할 수 없는 통합체”(신경림 외, 2004:450)라는 철학적 특성이 이 연구에 녹아들도록 노력할 것이다. 아울러 이 연구를 진행하는 전체 과정에서 워커(R. Walker)가 강조한 것으로, 연구자가 연구 관련 상황에 관여함, 수집한 자료를 비밀에 부쳐야함, 자료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허용하는 측과 통제하는 측 사이에서 난감함, 결과물 출판에 따른 관련인의 명예훼손, 자료와 연구자의 해석 사이를 구분할 수 없는 독자의 혼란스러움 따위와 같은 사례연구자의 윤리적 딜레마(이명숙, 2001:181)를 해결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2) 연구 문제

사례연구에서 자료 수집은 덜 매력적인 것까지도 연구 문제에 근거하여 여러 형태의 자료원을 통해 자세히 기록해야 하고, 이를 위해 연구 문제 목록을 만들어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Stake, 2000:88 재정리). 따라서 연구자들은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설정하여 문헌과 인형극 사례로부터 다양한 방법으로 자료를 수집할 것이다.

첫째, 사회복지실천 측면에서 인형극이 추구하는 가치는 무엇인가? 사회복지실천에서 중시하는 가치와 인형극에서 강조하는 가치가 일치하는 부분을 찾아 소개하고, 이들 가치에 중점을 둬으로써 인형극의 본질을 훼손하지 않고 오히려 인형극의 강점을 사회복지실천에 적용할 수 있다.

둘째, 사회복지실천 과정의 맥락에서 인형극의 과정은 어떠한 특성을 지니고 진행되는가? 규모와 상

- 5) 철학적으로 자연주의는 자연적 조건 아래 있는 현실을 객관적으로 분석·관찰·검토·보고하는 것(동서문화, 1999)을 일컫는다. 그러므로 자연주의적 일반화는 사물이나 현상을 있는 그대로의 한 존재로서 전체적으로 규명하는 것을 강조한다.
- 6) 자연주의적 존재론은 윤리학에서 강조하는 선형주의를 배격하며, 오직 사실적인 것과 경험적인 것에 정초한다(Essen·최신한, 1995:211). 따라서 자연주의적 존재론을 토대 삼은 사례연구에서 연구자는 실제 사례에서 벌어진 제반 현상 자체를 보아야 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료를 수집·분석하는 데 충실해야 한다.

관없이 사회복지실천은 일정한 과정을 거쳐 이루어지기 때문에 인형극이 단계별로 진행되는 과정을 파악하여 사회복지실천에 접목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비행청소년들이 인형극에 참여하면서 변화를 피하였거나 중요하게 경험한 것은 무엇인가? 이를 파악함으로써 사회복지실천에서 인형극의 효과성을 규명할 수 있고, 나아가 인형극에 참여하는 비행청소년들에게 특별히 효과적인 요소를 파악함으로써 어떤 클라이언트가 인형극에 참여할 때 한층 효과적인가를 규명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할 수 있다.

넷째, 사회복지사가 인형극을 활용할 때 갖추어야 할 지식 및 기술과 견지해야 할 마음가짐은 무엇인가? 인형극에서 요구하는 모든 전문 지식과 기술을 익히는 것보다 사회복지의 전문 지식과 기술에 근접하거나 응용 가능한 부분을 선택하여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이에 따라 사회복지사가 갖추어야 할 자세를 소개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사회복지사가 인형극을 사회복지실천에서 활용할 때 염두에 두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 앞의 네 가지 연구 문제 이외로 사회복지사가 인형극을 활용하는 과정에서 명심해야 할 단발적인 사항을 종합 정리하여 사회복지사들에게 기억시킬 필요가 있다.

3. 문헌 검토

인형극에 관한 이해, 인형극의 효과성, 사회복지실천에서의 인형극 활용 실태에 관하여 여러 문헌을 통해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인형극에 관한 이해

인형극에 관한 이해를 위해 인형극 가치, 인형극 종류, 인형극 진행 과정에 중점을 두고, 이와 관련된 주요 내용을 소주제화 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들활론적 사고와 익명성

인형극(人形劇, puppetry)이란 사람이 인형을 조작해서 연기하는 연극을 의미하며, 인간극(人間劇) 및 가면극(假面劇)과 함께 연극의 세 형태 중 하나로 만물에 영혼이 깃들어 있다고 생각하는 애니미즘적 사고나 샤머니즘적 주술을 바탕으로 여러 형태의 생산적인 행사나 축제에서 여러 인형을 사용함으로써 발생하였다(김애옥, 1998:9). 이는 인형극이 종교적인 생활이 일상화하는 과정에서 인형 역시 일상으로 들어와 놀이개감으로 이용되는 과정에서 특별한 재능을 가진 몇몇 인간들에 의해 극의 형태로 발전되어 오늘날의 인형극 형태가 탄생했다(조현산, 2004:1)는 인형극의 역사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인형극은 모든 자연물에 생명이 있다고 생각하는 물활론적 사고를 토대 삼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인형극은 인간극이나 가면극에 비해 익명성이 강해 인형극에 참여하는 이들의 사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는 인형극이 클라이언트의 익명성을 보장해야 하는 사회복지실천에서 유용함을 시사하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다. 덧붙여 다른 극예술이나 소설과 같은 문학처럼 “작가는 작중인물에게 익명의 존재이며 억압된 존재”(최성실, 2003:91)가 아닌 특성이 인형극에도 적용된다.

(2) 놀이를 통한 공동학습

인간의 표현활동은 원시 상태에서 점차 수단의 분화로 여러 가지 매체를 사용하고, 감정 표출이 충동적이며 단순한 근육활동에 불과하던 것이 점차 사회화·의식화한다는 전제 아래 인형극은 인형을 이용하여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하도록 구성하는 놀이라는 점에서 놀이치료의 성격을 띤다(정송자, 2003:3-5 재정리). 그래서 인형극을 참여자들의 심리적·사회적 문제나 욕구를 해결하는 데 도구화할 수 있다. 실제로 놀이치료는 부정적인 감정을 솔직히 표현하고 자신을 이해하는 적절한 방법을 적용시키고 발산하는 기회를 제공한다(이정숙·박현숙, 2002:218).

놀이를 에릭슨(E. Erikson)은 신체적 과정 및 사회적 과정을 자기와 일치시키려는 자아의 기능으로, 휴스(F. Hughes)는 선천적으로 동기가 유발되고, 자유롭게 선택되고, 책으로 배우는 것이 아니고,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즐거운 것이라고 정의하였고, 특히 놀이는 개인 내적 측면에서 무엇인가 하려는 인간의 욕구를 채워주고, 상황을 습득하게 하고, 상징과 소원충족을 통해 갈등을 정복하게 한다(O'Connor, 2003:3-9 재인용, 재정리).

이런 맥락에서 놀이의 정신을 사회에서는 최고도의 문화활동을 발전시키는 주요 원동력의 하나로 간주해야하며, 개인에게도 정신교육과 지적 발달의 주요 원동력의 하나로 여기지 않으면 안 된다(Caillois, 1994:10 재인용). 특히 정해진 엄격한 규칙이 없는 인형놀이는 자유로운 즉흥적 발상을 전제로 마치 자신이 다른 사람이나 사물이 된 것같이 행동하는 즐거움을 주된 매력으로 꼽는다(Caillois, 1994:32).

이와 같은 인형극은 “학생들이 주제를 정하고 전원 모듈별로 여러 교과를 넘나들며 토의한 뒤 그 성과물을 발표하는 공동학습”(홍순명, 2002:149)과 같은 가치를 지닌다고 할 수 있고, “진정한 학습이 이루어지려면 학생들이 서로 협력하고 상호작용하면 질문할 수 있도록 교사가 교실 환경과 교육과정을 조직해야 한다”(Fosnot et al., 2001:145)는 구성주의 관점과도 맥을 같이 한다. 그래서 인형극은 “재미를 통한 깨침이라는 고전적 명제에도 충실한 셈이다”(우찬제, 2003:109)고 강조할 수 있다.

(3) 소 프로그램화의 유용성

인형극 종류는 소개하는 이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대체로 손 인형극, 막대 인형극, 줄 인형극, 그림자 인형극, 탈 인형극으로 구분할 수 있다(김애옥, 1998:11). 이들 인형극이 내세우는 특성을 고려하여 집단을 활용하는 사회복지실천에서 유익한 소 프로그램으로 활용할 수 있다. 예컨대 손을 인형 입 속에 넣어 손동작으로 의사표현을 하면서 동시에 말하기를 실현하는 과정은 집단에서 역동성뿐만 아니라 집단성원들 간 관계형성과 교류 측면에서 적지 않은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그림자 인형극은 다른 인형극보다 참여자의 상상력을 향상시키고 깊은 감정적 호소력을 지니는데, 이는 심리적으로 ‘무의식’이나 ‘그림자’로 볼 수 있는 잠재된 심리내용의 표출에 관한 공통된 관점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김청자, 1999:115). 이와 같은 그림자 인형극의 효과성은 “사물은 제 안에 다른 것의 형상을 품고 있다가 그림자가 되어 비로소 그 잠재적 형상들을 우리 눈앞에 풀어놓고, 그 덕에 우리는 늘 보던 뻘한 세상에 감추어진 다른 세계를 보게 된다”(진중권, 2005:108)는 점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탈 인형극은 등장인물이 탈을 쓰고 무대 앞에 나와 동작할 때 움직임의 폭이 넓고 커서 생동감이 있고, 관객과 가까이에서 공연하므로 즉석에서 상호작용이 가능하고 친근감을 느낄 수 있다(김애옥, 1998:13).

한편 인형극의 종류는 아니지만 하나의 체험 프로그램으로서 번개 인형극(류지연, 2004:15)을 들 수 있다. 최근 인형극 전문가들은 짧은 시간에 하나의 인형극 작품을 만들어 내는 번개 인형극을 소개하고 있

다. 번개 인형극은 인형극의 형식을 간소화하여 간단한 작품을 만들어 진행함으로써 참여자들에게 지도력과 조직적인 사고능력, 창의적인 표현력, 자신에의 신뢰감, 정서적인 배출구 제공 따위에 중점을 둔 체험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인형극마다의 특성 속에서 인형극은 사회복지실천의 전체 프로그램에서 소 프로그램으로의 활용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4) 예술성과 과학성 속에서 현실과 상상의 세계를 넘나들

유아나 아동을 상대로 하는 인형극의 과정은 대체로 인형극본 만들기, 인형 만들기, 무대 및 소품 준비, 녹음, 연출 및 연기와 같은 단계(김애옥, 1998:13)를, 정신과에서 치료 성격을 띠는 인형극은 작품 및 역할 선택, 인형 만들기, 인형극 연기 및 역할 바꾸기, 공연 준비, 공연, 공연 후 모임 단계(김청자, 1997:150)를 거친다. 어쨌든 인형극에 참여하는 이들은 인형극본을 준비하고, 인형을 만들고, 무대를 설치하고, 연기를 연습하는 과정에서 예술성과 과학성을 바탕으로 현실과 상상의 세계를 오가는 체험을 한다. 이 같은 체험은 충분히 가능함을 “상상은 힘이다”(진중권, 2005:7)는 명제를 빌어 확인할 수 있다. 예컨대 인형극 참여자들은 등장인물의 성격에 따라 얼굴 크기, 살갗의 조화, 얼굴 윤곽, 이목구비의 크기와 모양, 턱의 균형 따위가 잘 나타나도록 하는 작업을 통해 역동성과 집중력을 자연스럽게 발휘하며, 이 과정이 작업치료로 이어지고, 작업치료는 자연스럽게 심리치료의 과정으로 연결될 수 있다(김청자, 1999:140).

2) 인형극의 효과성

인형극의 효과⁷⁾와 관련하여 대체로 선행 연구는 유아 및 아동에 한정하고 있다. 이는 유아의 표현활동은 원시 형태에서 점차 표현 수단의 분화로 인하여 여러 가지 매체를 사용하려 하고, 감정의 표출이 충동적이며 단순한 근육활동에 불과하던 때와는 달리 사회화되고 의식화되어 가면서 표현의 상징화를 시도하려는 시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정송자, 2003:5). 이는 웹(N. Webb)이 강조한 것처럼 인형은 아동이 인형과 동일시하려 하고, 놀이과정에서 자신의 감정을 투사하며, 자신의 갈등을 인형에게 대치시키기 때문에 치료에 사용될 수 있다(김삼성, 2003:11 재인용). 이런 맥락에서 인형극의 효과는 다음과 같이 교육과 치료로 집약·정리할 수 있다.

(1) 놀이를 통한 교육

이미 다수의 선행 연구를 통해 인형극은 경도 정신지체 아동의 언어능력, 감각운동능력, 자아개념, 문제해결 능력 따위를 향상시키는 데 효과가 두드러진 것으로 밝혀졌다(정송자, 2003). 이뿐만 아니라 인형극은 유아의 대인문제 해결 사고를 증가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활용되었고, 인간의 갈등을 인형에 투사하여 재구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효과적인 방법으로 인정받고 있다(김현경, 1993:50 재인용). 예컨대 장애유아가 비장애유아에게 또래로서 수용되기 위해서는 장애유아와 비장애유아 모두가 서로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이질적인 상대의 존재를 받아들여야 하는바, 이를 위한 중재방법 중 하나로 인형극은 활용되고, 인형극을 통해 장애에 대한 태도를 변화시킨 연구에서 학령기 아동을 대상으로 각 장애에 대한 올바른

7) 인형극의 효과성에 관한 선행 문헌은 김삼성(2003)의 자료를, 치료를 위한 인형극 실제에 관한 문헌으로는 김청자(1997,1999)의 자료를 참고할 것.

른 인식과 접근방법, 장애에 대한 태도와 지식을 개선시켰다(유수옥·최수미, 2001:287).

인형극은 학습이 일어나는 상황에서 새로운 탐색과 통찰을 가능하게 하고, 인형극 매체는 보상물로 제공될 수 있고, 동기유발 수단과 피아제(J. Piaget)가 제시한 구체적 사물에 대한 탐색을 가능하게 한다(김삼성, 2003:10). 어쨌든 인형극의 교육적 효과는 참여자들의 개인적인 문제보다 집단의 문제를 다루고, 공유된 역할에 관심을 두고 교육 현장에서 활용되고 있는(Sternberg & Garcia, 1999:229) 사회극(sociodrama)과도 맥을 같이 한다.

(2) 놀이를 통한 치료

신화시대 이래 인류와 삶을 함께 한 정신의학적이고 문화적인 유산이라고 볼 수 있는 인형 매체는 인간의 상상력에서 온 가장 강력한 원동력의 하나인 투사 메커니즘을 적극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스스로 자신의 문제에 대처해서 갈등을 자각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도달하게 한다(김청자, 1997:142-143). 이는 “인형극은 환상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현실을 상징적으로 표현할 수 있게 해준다”(김삼성, 1999:102)는 점에서도 드러난다. 실제로 전 세계적으로 심리분석가, 교육자, 사회복지사, 치료자들이 모여 인형극을 도구로 한 치료적 효능을 연구해왔다(김청자, 1997:147). 이는 인형극의 위력이 살아있는 듯하고, 만져볼 수 있고, 시각적이라는 점(여광용·김삼성, 1998:23)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자기가 해보고 싶은 동작이나 대사를 인형이라는 매개체를 통하여 자연스럽게 창의적으로 표현해 볼 수 있기 때문에 표현이 상징화 및 인간과 인간이 갖는 갈등을 대변하는 매체로써 인형극은 무엇보다 좋은 특성을 갖고 있다(김현경, 1993:53 재인용). 이는 인형극이 치료 측면에 중점을 두었을 때 ‘여기-지금(here and now)’에서 가능한대로 즉흥연기에 의해 참가자 자신의 심리 내용을 자연스럽게 표출하도록 이끌고, 역할 바꾸기를 통해 자신의 인물을 발전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김청자, 1997:151-152 재정리). 이와 같은 인형극의 효과는 환자가 불명확한 감정 상태를 탐구하고 타인을 이해하는 요령을 역할 바꾸기를 통해 터득하고(Blatner, 1997:16), 개인의 창조성과 자발성 및 인간의 참만남을 주요 원리로 삼는 심리극의 효과(Karp et al., 2005:66)와 대동소이하다.

3) 사회복지실천에서의 인형극 활용 실태

연구자들은 사회복지실천 현장에서 인형극을 활용한 연구 문헌을 찾을 수 없었고, 입소문으로 더러 사회복지실천의 소 프로그램으로 인형극을 활용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예컨대 정신장애인을 위한 생활시설에서 사회복지사가 인형극을 정기 프로그램으로 실시하고, 성폭력상담소에서 사회복지사가 단발적인 프로그램으로 인형극을 실시하고, 사회복지학을 전공한 교회의 교역자가 아동과 성인을 대상으로 수시 프로그램으로 인형극을 활용하고 있다.

인형극의 활용 가치로 창의적 사고와 상상력 유발, 불안감이나 긴장감과 같은 부정적 감정 따위를 해소하는 치료적 역할, 문제해결의 연습과 기회 제공, 자아존중감 강화를 들 수 있다(김애옥, 1998:10). 실제로 인형극의 활용 가치가 높은 것으로 선행 연구에서 드러나고 있다. 아울러 인형극의 활용 가치는 인형극에 직접 참여하는 사람과 인형극을 관람하는 이들에게 적용되겠지만, 특히 인형극에 등장인물로 참여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강한 효과를 미치고 있다. 이와 같은 가치를 지니는 인형극은 실천 현장의 사회복지사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오기에 충분하다. 그럼에도 인형극이 사회복지실천에 크게 적용되지 못함

은 대체로 인형극이 교육 성격이 더욱 강하고, 성인보다는 아동에 더욱 중점을 두고 활용되었다(여광웅·김삼성, 1998:19)는 점을 들 수 있다. 즉 인형극이 유아나 아동을 주요 대상으로 삼고, 나아가 이들의 교육에 중점을 두어 발전·확대되면서 사회복지실천 현장으로 넘어오지 못했다고 추측할 수 있다. 어쨌든 가치나 효과성 면에서 인형극은 집단을 활용한 사회복지실천에서 노리는 것과 부합하는 면이 많아 사회복지사의 실천 방법이나 기술로써 활용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4. 인형극 사례 분석

연구자들은 보호관찰 대상 청소년이 참여하는 인형극⁸⁾을 2004년 4월부터 8월까지 실시하였다. 이 사례를 크게 계획, 연습·공연, 종결·평가 세 단계로 나누어 사례연구에서 강조하는 분석 요령을 바탕으로 정리하도록 하겠다. 여기에 사용한 자료는 연구자들의 기록, 인형극본, 인형극본 녹음 내용, 연구자들이 찍은 사진, 참여 청소년들이 작성한 소감문 따위였다.

1) 계획 단계

계획 단계의 주요 과업은 인형극에 참여하는 청소년과 협력자를 선정하고, 앞으로의 일정을 계획하고, 전체 인형극에 대한 평가 방법을 정하는 것이었다. 이 단계에서 수집한 자료를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복 받은 아이들, 복 짓는 어른들

연구자들은 보호관찰 대상 청소년을 위한 인형극을 사전에 기획하여 보호관찰소 측과 만나 프로그램으로 제안하였다. 보호관찰소 측은 쉼터에 있는 청소년들이 적당하다고 하여 쉼터를 운영하는 목사님과 함께 논의하기로 하였다. 이후 쉼터의 목사님도 찬성하였고, 이때 보호관찰소의 담당 보호관찰관과 쉼터의 목사님은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을 하니 우리 아이들은 복 받았다”고 하였다. 이런 말이 나온 것은 보호관찰소가 중심이 되어 진행한 프로그램 중 처음으로 실시하는 인형극이라는 점과 춘천인형극제에도 출전한다는 계획 때문이었다. 이와 같은 프로그램은 누구로부터 지시를 받아 진행하는 것이 아니고 연구자나 보호관찰소 및 쉼터가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데 의미를 두고 있다. 따라서 보호관찰소와 쉼터와 연구자들은 ‘복 짓는 어른들’의 선량한 마음을 청소년들에게 보여주는 자세로 임하고자 다짐했다. 이는 “좋은 음식은 좋은 재료에서 나온다”(박완서, 2003:164-165)는 이치에 견줄 수 있다.

8) 이 사례는 연구자들이 수년 전부터 2004년 3월까지 기획하여 먼저 보호관찰소 측에 보호관찰 대상 청소년을 위한 집단 프로그램으로 제안하였다. 보호관찰소 측은 이 안을 보호관찰 대상 청소년이 일시 거주하는 쉼터의 청소년들에게 적용하는 것으로 받아들였다. 이후 보호관찰소와 쉼터와 연구자들이 수차례 회의를 통해 인형극을 실시하기로 결정하였다. 이 과정에서 쉼터의 청소년들은 인형극에 참여하고, 인형극단을 ‘모약산’으로 하는 데 합의하였고, 보호관찰소와 쉼터와 연구자들이 맡아야 할 역할을 분담하였다. 참여 청소년은 7명이었고, 매주 1회 약 2시간씩 단계별로 진행하였으며, 참여 청소년들의 다양한 경험을 결합하여 “아름다운 비행”이라는 인형극본을 만들었다. 인형극본 및 인형 만들기과 부분 연습을 7월 초까지 쉼터에서 하였고, 춘천인형극제에 나가기 전 약 3주간은 장소를 전복대로 옮겨 매일 전체 연습을 하였다. 이 기간에 한 교회로부터 초청받아 1회 공연을 실시하였고, 춘천인형극제에 참가하기 위해 춘천으로 떠나기 전날에는 무대가 설치된 종합강당에서 마무리 연습을 종일 하였다. 8월에 3박 4일 일정으로 춘천인형극제에 출전한 후 사례를 마쳤다.

(2) 참여 청소년들 중심

연구자들의 제안에 보호관찰소 측과 쉼터 측이 합의했음에도 쉼터의 목사님은 아이들에게 인형극 참여 여부를 묻고 허락을 받아야 한다고 하였다. 목사님은 “이렇게 좋은 일일수록 아이들의 참여 의사를 물어야 한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쉼터 목사님의 입장은 사회복지실천이 클라이언트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맥락과 일치한다. 연구자들과 보호관찰소 측은 이에 동의하고 쉼터를 직접 방문하여 청소년들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하였고, 일주일 후에 연구자들과 담당 보호관찰관이 쉼터를 방문하여 청소년들로부터 인형극에 참여하겠다는 허락을 받았고, 이들은 열심히 임하겠다고 굳게 다짐했으며, 일주일 후부터 쉼터에 있는 1층 다용도 공간에서 시작하기로 하였다. 아무리 프로그램이 좋고, 보호관찰소가 보호관찰 대상 청소년의 형을 집행하는 권한을 쥐고 있다고 할지라도 최종적으로 참여 청소년들에게 의향을 물어 신중히 개입한 것은 이들 청소년을 위해 쉼터나 보호관찰소나 연구자들이 지켜야 할 적절한 태도였다.

2) 연습·공연 단계

연습·공연 단계에서 실시한 주요 과업은 인형극본 만들기, 인형 만들기, 연습, 소품 만들기, 공연이었다. 이 단계에서 드러난 주요 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두려움 반, 호기심 반

초기에는 대부분의 참여 청소년들이 두려워하는 태도를 보였고, 차츰 한두 명의 동료들이 “한번 해보자”라는 충동질과 함께 대부분의 참여 청소년들이 인형극에 관한 호기심을 띠면서 재미거리로 임하기 시작하였다. 참여 청소년들은 “우리가 대사를 외워야 해요? 인형극 대회에 나가면 사람들 많잖아요?” 하면서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였다. 참여 청소년들이 이처럼 인형극을 두려워했던 것은 “인형극은 여자애들이 소꿉놀이나 하면서 하는 것이지”라고 하는 정도로 이들이 인형극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소치라고 할 수 있다. 그 결과 초기에는 이와 같은 생소함을 인형극에의 무관심으로 이어가는 참여 청소년들도 있었다.

인형극에 관한 기초적인 지식을 소개하고 인형극본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주인공을 비롯하여 각자의 배역이 주어지자 청소년들은 호기심을 지니기 시작하였다. “인형이 움직일 수 있게 만들 수 있나요? 인형 만들고 나면 뭐 하지요?”라고 하면서 참여 청소년들은 호기심을 드러냈다. 김청자(1997:150)도 연구에서 밝힌 것처럼 참여 청소년들이 두려움과 호기심을 지니는 것은 새로운 경험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2) 고통스런 반복과 고민스런 통제

인형극 연습은 청소년들이 시종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가운데 진행되어야 했으나 종종 보호관찰관이 나서서 무분별하게 장난을 일삼는 참여 청소년들을 통제하였다. 이와 같은 통제는 사회복지실천 측면에서 바람직한 것은 아니나 보호관찰관이 지시하면 청소년들은 심한 장난을 중단하고 인형극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런 상황이 한두 번 벌어지면서 연구자들이 앞장서 가끔 혼란스러울 때 보호관찰관에게 통제를 위한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쉼터의 목사님이나 보호관찰소의 보호관찰관은 참여 청소년들에게 “가끔씩 하는 통제가 악이 된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와 관련하여 연구자들은 인형극

을 이끌어가는 데 미숙한 점도 있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왜냐하면 비록 인형극에 참여하는 청소년들이 보호관찰을 받아 산만한 태도를 떨 수도 있겠지만 인형극을 진행하는 연구자들의 역량이 뛰어났다면 이런 문제는 사전에 막을 수 있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참여 청소년들이 통제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반복되는 연습 과정이었다. 하루에 2시간 남짓 연습하면서 같은 내용을 서너 차례 되풀이 하는 것은 이들에게 끊임없는 반성적 태도를 요구하는 것과 다를 것이 없었다. 이 같은 과정은 참여 청소년들에게 고통으로 다가왔었던 것이다. 그럼에도 보호관찰은 통제 후 보호에, 사회복지서비스는 지지 후 변화에 중점을 두기 때문에 보호관찰과 사회복지가 서로 상반하는 특성(최옥채, 2004:90)을 고려한다면 연구자들은 실천 윤리 측면에서 딜레마에 빠질 수도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3) 본업과 부업이 뒤바뀜

인형극의 진행이 본격적으로 훈련 단계에 접어들면서 참여 청소년들은 다니던 학교, 학원, 직장으로부터 결석·결근 허락을 받아야 했다. 이 허락받는 일을 위해 쉼터의 목사님이 수고하였다. 목사님은 “요즘 아이들의 본업과 부업이 바뀌었어요. 일곱 명의 ‘본업’에 찾아가 사정하는 것이 처음 하는 일이지만 즐겁습니다”라고 하였다. 이렇게 참여 청소년들이 평소 하던 일을 일시 중단하고 인형극에 참여하는 것은 바람직한 점과 바람직하지 않은 점이 공존할 수 있다. 특히 바람직하지 않은 점으로 참여 청소년들이 학습 부실이나 근무 소홀을 초래할 수 있는데 이들이 사후에 만회할 수 있는 노력을 기울이도록 지도할 필요가 있다.

(4) 놀이, 집중, 개방

인형극본과 인형을 만들거나 연습을 할 때 참여 청소년들은 나이가 20대 전후이면서도 어린이처럼 무질서하게 노는 모습을 보였다. 인형극본을 만드는 과정에서는 서로 지난 이야기를 하면서 야지하거나 웃으며 떠들었고, 인형을 만드는 과정에서는 농담하고, 재료를 던지며 노는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다. 그런가 하면 인형극본과 인형을 완성해야 할 시점에서는 “친구의 가족 이야기를 들으니까 슬퍼요. 인형이 저를 닮았는데 슬퍼 보여요”라고 하면서 집중하였다. 이뿐만 아니라 참여 청소년들은 연습 중 인형이 부서지면 처음에는 “이거 고쳐주세요”라고 하였는데 나중에는 “내 인형 수술해주세요”라고 하였다. 이는 청소년들이 자신과 인형을 동일시하면서 집중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집중을 통해 참여 청소년들은 자신을 개방하는 진지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런 태도에서 레이저(Y. Leyser)가 강조한 바처럼 인형극은 학습과정을 촉진하고 향상시키기 위한 동기전략으로서 교육활동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김삼성, 1999:102 재인용)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5) 속내 들여다보기

참여 청소년들은 인형극본 만들기, 인형 만들기, 실제 상황을 연습하면서 타인과 자신 및 가족을 돌아보는 기회를 가졌다. 이는 앞에서 언급한 놀이, 집중, 개방에 이어지는 것으로 참여 청소년 중 가장 나이가 어린 성원이 “우리는 주인공처럼 가족으로부터 상처받은 경우가 많아요. 그게 공통점이예요”라고 말하는 모습에서 짐작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정은 13년간 보호관찰 업무를 맡아온 보호관찰관이 “이렇게 인형극을 통해 아이들이 속내를 들여다보게 하는 것은 처음입니다”고 하는 진술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이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은 쉬는 시간에 “인형극을 하면서 서로 무지 친해졌어요”, “짜식, 그래도 너는 누나한테서 전화라도 오잖아”, “야, 다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야 서운하게 생각하지마” 라고 하면서 서로 속내를 들여다보며 위로하였다. 이런 과정에서 참여 청소년들은 불행했던 과거의 상황을 매우 정확히 기억·묘사하였다. 이는 참여 청소년들이 인형극을 통해 “상상의 세계를 넘나들면서 행복하지 못했던 과거를 올바르게 성찰하면서 당시의 어려움을 웃으며 즐길 줄 아는 문학가의 해학성”(우찬제, 2003:91 재정리)을 발휘하게 하는 전경이라고 할 수 있다.⁹⁾

3) 종결·평가 단계

인형극 전체 과정은 춘천인형극제에서 대회 공연을 마치고 돌아와 종결되었으며, 곧 바로 보호관찰소에서 참여 청소년들, 쉼터 목사, 보호관찰관들, 연구자들이 중심이 되어 평가하는 시간이 있었다. 이 평가하는 시간 이외에도 전체 과정에서 드러나 평가 관련 사항을 중심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모든 참여자들의 자신감 및 자부심 강화

처음에 참여 청소년들은 대체로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으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신감을 띠며 적극적으로 임하였다. 이들에게 자신감은 인형극본과 인형을 만들고 각 상황을 연습하면서 서서히 일어났으며, 춘천인형극제 출전을 마치고 어떤 일에 자신감을 지니게 되었다. 이런 모습은 인형극 연습이 고조되었을 때 “이렇게 막 뒤에 숨지 말고 무대에 서서 하면 더 좋겠어요”라고 하는 청소년의 태도나, 연구자들을 비롯하여 쉼터의 목사님과 목사님의 가족들, 쉼터 후원자들, 보호관찰소의 실무자들, 연구자들의 동료들의 피드백으로부터 확인할 수 있었다. 물론 이 같은 자신감은 전적으로 자신만만하게 경험한 것은 아니고 매 순간 긴장을 겪으면서 이루어진 것이다.

한편 참여 청소년들은 인형극을 종결한 후에도 쉼터에 새로 들어온 친구들과 팀을 다시 짜서 계속하자고 요구하였고, 새로운 친구들과 주변 사람들에게 인형극에 참여한 경험을 두루 자랑함으로써 생활 속의 자부심을 지니고 있었다. 즉 참여 청소년들은 인형극을 통해 누구에서든 자랑할 수 있는 거리를 마련함으로써 자부심을 강하게 느꼈다. 물론 참여 청소년들의 자신감과 자부심의 정도는 개별적인 차이는 있다. 나아가 인형극에 참여한 쉼터의 목사님, 보호관찰소의 보호관찰관들, 연구자들, 후원자들 역시 인형극을 활용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참여 청소년들의 변화된 모습을 통해 그동안의 활동에 자부심을 갖게 되었다.

(2) 밀어붙이기 식

인형극이 연습 단계 중반에 들어섰을 때 인형극에 경험이 많고 사회복지학을 전공한 한 교회의 목사님으로부터 도움을 받으면서 “어떻게 춘천인형극제에 출전하게 되었어요? 저도 10년 넘게 여러 인형극 팀을 지도하고 공연도 많이 했지만 춘천인형극제에 출전하는 것은 생각하지도 못했는데, 대단합니다”라

9) 실제 인형극에서 해학성이 묻어나는 장면으로 인형의 움직임, 비행청소년들이 나이트클럽에서 춤추는 것 따위를 들 수 있고, 대사로는 “참, 이상하시네!”, “당근이지”, “아저씨가 우리에게 뭐 보태준 것 있어요?” 따위를 들 수 있다. 특히 유행어를 상황에 적절히 사용하거나 억양을 조작함으로써 웃음을 자아냈다.

는 말을 들었다. 이때부터 연구자들은 속으로 두려워졌고, ‘무식이 박력’이라는 말을 떠올렸다. 실제로 이런 두려움은 춘천에 도착하여 다른 출전 인형극단들의 준비 상황을 보고 현실로 드러났다. 대부분의 인형극단들은 소품만 신고 온 트럭이 따로 있을 정도로 만반의 준비를 하였고, 소품마다 많은 정성을 쏟은 흔적이 역력하였다. 우리 연구자들도 속으로 “공연마저 엉터리로 하면 이번 행사에 큰 우셋거리가 되겠다”고 걱정하였다. 그럼에도 우리 인형극단은 지금까지 했던 대로 최선을 다해 마지막을 잘 장식하고자 다짐하였다.

(3) 합의, 갈등, 뭉침

참여 청소년, 쉼터, 보호관찰소, 후원자, 연구자들이 협력하여 5개월 동안의 인형극을 마쳤다. 후원자로는 한 참여 청소년과 결연한 주부, 쉼터를 지원해왔던 식당, 연구자들을 지원한 교회와 동료들을 들 수 있다. 이 전체 과정은 참여 청소년을 비롯한 여러 개인과 기관이 참여하여 초기에는 합의, 중간에는 갈등, 마지막으로 뭉침으로 진행되었다.

참여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쉼터, 보호관찰소, 연구자들이 함께 합의하여 인형극을 시작하였다. 이때까지만 해도 서로 협력하는 분위기 속에서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그러나 날이 더워지고 인형극을 연습하는 정도가 심화되면서 참여 청소년들은 청소년들대로 지쳐 참여 의지가 약해지고, 보호관찰소는 다른 프로그램 일정 때문에 인형극에 소홀해지고, 연구자들은 처음 진행하는 상태에서 춘천인형극제가 다가오면서 불안감을 떨치지 못하고 협력 기관과 개인들이 갈등하는 모습을 드러냈다. 그러나 춘천인형극제 출전 1주일을 남겨두고 이들 기관과 개인들은 회의를 통해 절박한 심정을 토로하면서 서로 협력하기로 하고 마지막 최선을 다하기로 뭉쳤다.

한 가지 인형극을 위해 여러 개인과 기관들이 서로 힘을 합쳐 인형극을 위해 참여함으로써 이후 초청 공연이 들어오기도 하였다. 특히 평소 보호관찰 청소년들에게 큰 기대를 하지 않았던 보호관찰소 측에서도 “사후 공연이 이루어지도록 적극 협의하겠다, 아이들에게 변화가 있었다”고 강조하면서 비행으로 낙인하는 것에서 벗어나 참여 청소년들의 노력을 칭찬하였다.

우리 연구자들은 장기간 연습과 인형극 대회에 참가를 통해 비행청소년들에게 평소 신중해야 함을 심어주는 계기가 되었고, 이들에게 평소 무기력하고 대충 살려는 태도를 돌아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고, 이들에게 시간 시간이 소중한 일깨워줄 수 있었다. ‘가르치며 배운다’는 소중한 교훈을 경험하였다.

5. 논의

연구자들은 연구 주제로 사회복지실천 측면에서 보는 인형극의 가치, 인형극의 진행 과정상 특성, 참여 청소년의 변화 정도, 인형극을 위한 지식 및 기술과 마음가짐, 인형극에서의 주의 사항을 제시하였고, 이들 연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문헌과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인형극의 소중한 가치는 인형을 살아있는 존재로 받아들임으로써 인형극에 참여하는 이들이 놀이를 통해 상상력을 발휘하고, 이를 토대로 자신을 통찰하고, 그래서 변화를 피하게 된다는 점에 들 수 있다. 이런 인형극의 가치는 사회복지실천에서 클라이언트의 변화 과정과 극적으로 일치한다. 연구자들은 이런 인형극의 가치를 실제 인형극 사례를 통해 경험하였다. 특히 의사소통의 주요 수단이 문자매체에서 영상매체로 옮겨가는 미디어 환경의 변화와 새로운 세대는 이미 문자적 사유가 아니라 이미지적 사유를

하고 있다(진중권, 2005:8)는 점을 감안하면 앞으로 인형극의 활용도는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인형극의 진행 과정상 특성은 앞에서 살펴본 인형극의 가치가 그대로 스며들어 드러나고 있다. 참여자들은 인형극본·인형·무대·소품 만들기과 준비 단계, 연기 연습 단계, 공연 단계를 거치면서 각 단계에서나 전체 과정에서 놀이정신에 근거하여 현실과 상상의 세계를 드나들며 경험한다. 참여자들은 '놀이-집중-개방-속내 들여다보기'라는 과정의 경험을 통해 인형극이 노리는 교육이나 치료의 효과를 만끽한다. 특히 이런 효과는 다양한 인형극의 종류로부터 더욱 상승시킬 수 있다. 사회복지실천 측면에서 볼 때 이 같은 인형극의 진행 과정상 특성은 사회복지실천에서의 집단을 통한 방법이 자랑하는 특성을 넘치게 포괄하는 것이다. 따라서 사회복지사는 인형극을 익혀 사회복지실천 현장에서 적용할 필요가 있는 분명한 인형극을 위한 준비가 만만치 않다는 점을 명심하고 이 과제를 풀어야 한다. 왜냐하면 인형극을 단순히 집단을 통한 사회복지실천의 소 프로그램으로 활용할 때는 간단히 적용할 수 있으나, 전체 인형극을 시도하려고 할 때는 부수적으로 준비해야 할 거리들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이 연구의 사례에서 참여 청소년 7명의 변화 정도는 개인별로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일괄하여 평가할 수는 없다. 대체로 인형극에 참여한 청소년들은 일상에서의 자신감과 자부심을 지니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결과로 인형극이 이들 청소년들에게 효과적이었던 구체적으로 요인들은 확인할 수 없었다. 이 연구의 설계로 규명하기에는 버거운 과제였다. 이는 이 연구의 한계로서 인형극을 통한 참여 청소년들의 변화 요인을 확인할 수 있는 사전 사후 측정 도구를 마련하지 않는 데 원인이 있었다.

인형극이 참여자들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상상력의 세계는 "어린이의세계로 회귀하려는 성숙한 자만이 들어갈 수 있는 초록빛 낙원"(진중권, 2005:11 재인용)이라고 하고, "문학에서도 상상력은 개인의 의식과 무의식, 몸과 혼, 인간과 인간, 공간과 공간, 과거와 현재와 미래 사이의 심연을 채우고 연결하는 역할을 담당해왔다"(우찬제, 2003:17)고 하는 점을 고려하면 인형극의 활용을 굳이 유아나 아동에게만 한정할 필요는 없다. 이미 이 연구에서 드러난 바처럼 인형극은 최소한 비행청소년들에게 자신감과 자부심을 심어주었다는 면에서는 효과적이었다. 따라서 인형극은 다양한 사회복지실천 현장에서 두루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후속 연구를 통해 확인해야겠지만 인형극은 아동은 물론 청소년, 장애인,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집단 중심 프로그램으로 활용 가치가 높고, 특히 관객이나 협력자로 함께 하는 이들에게도 유익할 것으로 생각한다.

인형극에 참여한 청소년들이 자신감과 자부심을 지니게 된 것은 이들에게 배역으로서 분명하게 주어진 역할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참여 청소년들에게 이 역할은 인형극에서 완수해야 할 책임이었고, 대중 넘어갈 수 없는 과제였다. 덧붙여 이들의 성공적인 과업 수행은 누구도 함부로 벗어날 수 없는 인형극이라는 울타리가 지은 경계선에 기인하기도 한다. 따라서 이들 청소년은 이 과업을 피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직면하는 형국으로 치닫는, 즉 인형극에 집중함으로써 자신감과 자부심을 얻게 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복지사는 인형극을 위해 놀이 정신과 놀이 문화에 관한 지식을 비롯하여 인형극의 가치를 철저히 익혀야 하고, 이런 지식을 바탕으로 종류별로 인형극을 이끌어 갈 수 있는 방법과 이에 따른 구체적인 기술을 익혀야 한다. 연구자들이 경험한 바처럼 '밀어붙이기 식'으로 달라붙지 말고 기초부터 착실히 다져갈 필요가 있다. 사회복지사는 인형극이 '합의-갈등-몽침'으로 진행되는 과정을 적절히 대처할 수 있어야 하고, 특히 '고통스런 반복'에 의한 연습에서 참여자들을 통제하지 않고 사회복지실천 가치에 합당하게 이끌어갈 수 있는 기술을 익혀 적용함으로써 좋은 인형극 지도자로 남아야 한다.

한편 사회복지사는 인형극을 실시할 때 참여자들이 시간을 집중 투자해야 할 때 참여자들의 주변 상황은 물론 사후 처리까지도 개입해야 한다. 아울러 사회복지사는 이 연구의 사례에서와 같이 인형극 대회에는 나갈 필요는 없다. 그러나 인형극을 온전하게 적용하는 프로그램에서는 관객을 모시고 공연할 수 있는 거리를 마련해야 한다. 이와 달리 인형극을 소 프로그램으로 활용할 때는 굳이 이와 같은 공연 거리를 계획하지 않아도 된다.

연구자들은 문헌과 사례를 통해 명분이나 실리 측면에서 인형극은 사회복지실천 현장에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하였다. 특히 인형극은 집단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복지실천에서 하나의 방안이나 기술로 활용하는 데 손색이 없고, 오히려 사회복지사의 좋은 연장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인형극을 사회복지실천 현장으로 끌어들이려는 연구자들의 노력은 예전에 심리극 전문가들이 사회복지실천 현장과 함께 하면서 심리극의 대중화를 꾀할 수 있었던 경험¹⁰⁾을 재현하기 위한 것으로 보아 마땅하다.

참고문헌

- 교정사회사업연구회. 1996. 『교정사회사업』. 서울: 아시아미디어리서치.
- 김삼성. 1999. "인형극을 통한 장애인식 증진의 효과". 발달장애학회지 제3집.
- 김삼성. 2003. 『인형극 치료·인형극 교육』. 서울: 도서출판 특수교육.
- 김성천. 1995. "한국에 적용된 사회사업 실천이론의 연구동향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통권 제27호.
- 김애옥. 1998. 『인형극의 이론과 실제』. 서울: 양서원.
- 김청자. 1997. "심리치료적 인형극의 매소드 연구(1)". 『연극교육연구』 제1권.
- 김청자. 1999. "심리치료적 인형극의 매소드 연구(2)". 『연극교육연구』 제3권.
- 김현경. 1993. "인형극을 통한 문제해결 상호작용이 대인문제해결 사고에 미치는 효과". 아동학회지 제14권 2호.
- 동서문화. 1999. 『PASCAL 세계대백과사전』.
- 류지연. 2004. "번개 인형극". 인형극 바로알기 유치부 및 초등교사 워크숍 자료집. 한국인형극협회.
- 박완서. 2003. 『두부』. 서울: 창작과비평사.
- 신경림 외. 2004. 『질적 연구 방법론』. 서울: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 여광웅·김삼성. 1998. "장애아동 교수매체로서 인형극의 효율성과 그 활용 방안". 발달장애학회지 제2집.
- 우찬제. 2003. 『고독한 공생』. 서울: 문학과지성사.
- 유수옥·최수미. 2001. "인형극이 장애유아 수용 증진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제22권 4호.
- 이명숙. 2001. "질적 사례연구". 길병휘 외. 『교육연구의 질적 접근』. 서울: 교육과학사.
- 이정숙·박현숙. 2002. "퇴행 행동을 보이는 아동의 놀이치료 사례연구". 『정서·학습장애연구』 Vol. 17. No. 3.
- 정송자. 2003. "인형극놀이가 정인지체 아동의 언어능력과 기본 생활습관 형성에 미치는 효과". 『현장특수교육 2차 연구보고서』. 특수교육총연합회.

10) 우리나라에서 심리극은 199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대중화하지 못했으나 이후 한국사이코드라마연구회가 만들어지고, 이를 토대로 한국사이코드라마소시오드라마학회가 창립되면서 널리 알려지게 되었는데, 이때 교정사회사업연구회(1996:224)가 강조한 것처럼 사회복지실천 현장의 사회복지사들이 함께 하였고, 심리극은 사회복지실천의 한 개입 기술로 소개되었다.

- 조현산. 2004. "인형극의 이해". 인형극 바로알기 유치부 및 초등교사 워크숍 자료집. 한국인형극 협회.
- 진중권. 2005. 『놀이와 예술 그리고 상상력』. 서울: 휴머니스트.
- 최성실. 2003. 『육체, 비평의 주사위』. 서울: 문학과지성사.
- 최옥채. 2004. "보호관찰의 사회복지적 역할에 관한 연구". 『보호관찰』. 제4호.
- 홍순명. 2002. 『더불어 사는 평민을 기르는 풀무학교 이야기』. 인천 강화: 내일을 여는 책.
- Bahr, Howard, Caplow, Theodore. 1991. "Middletown As an Urban Case Study". Joe R. Feagin et al. eds.. A Case for the Case Study. The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Chapel Hill.
- Blatner, Adam. 1997. 『싸이코드라마의 토대』. 한국싸이코드라마학회 역. 서울: 중앙문화사.
- Caillois, Roger. 1994. 『놀이와 인간』. 이상률 옮김. 서울: 문예출판사.
- Essen, V., 최신한. 1995. "칸트 실천철학의 위대성과 한계". 한국헤겔학회 편. 『헤겔연구6』. 서울: 청아출판사.
- Fosnot, Catherine Twonmey et al.. 『구성주의 이론, 관점, 그리고 실제』. 조부경 외 편역. 서울: 양서원.
- Hufnagel, Erwin. 1994. 『해석학의 이해』. 강학순 옮김. 서울: 서광사.
- Karp, M. et al.. 2005. 『심리극의 세계』. 김광운 외 역. 서울: 학지사.
- Leyser, Y.. 1984. "Educational puppetry: A valuable instructional resource in regular and special education". The Pointer. No. 28.
- O'Connor, Kevin J.. 2003. 『놀이치료입문』. 송영혜·윤지현 옮김. 서울: 시그마프레스.
- Orum, Anthony, Feagin, Joe, Sjoberg Gideon. 1991. "The Nature of the Case Study". JoeR. Feagin et al. eds.. A Case for the Case Study. The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Chapel Hill.
- Stake, Robert E.. 2000. 『질적 사례연구』. 홍용희 외 역. 서울: 창지사.
- Sternberg, Patricia, Garcia, Antonina. 1999. 『사회극을 통한 우리들의 만남』. 조성희·김광운 역. 서울: 학지사.